

艸衣 意恂의 茶禪 思想

진월 이영호 (서울불교대학원대 불교학)

1. 머리말

초의 의순(1786-1866)은 조선 후기의 禪師로서 여러 분야에 탁월한 소양을 갖춘 인물이었다.¹⁾ 詩書畫三絶로 불렸듯이 그는 당대의 뛰어난 예술가였으며, 茶聖으로 통하듯이 한국의 茶文化를 중흥시킨 茶人이었다. 선사로뿐만 아니라 律師로도 호칭되듯 근대 한국의 律脈을 형성하고 전승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華嚴山林의 會主였던 사실이 보여주듯 교학에 밝은 法師이기도 하였다. 다산 정약용(1762-1836), 추사 김정희(1786-1856) 등 진보적 유학자들과도 교류하며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한 사실은 현대의 다종교적 사회에 시사하는 바 크다. 초의의 선과 차에 대한 각 부문별 연구는 상당히 되어오고 있지만 그 두 부분을 아울러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서, 여기서는 그의 禪과 茶에 대한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고찰해 보려 한다.

초의의 생애는 조선 후기의 정치와 사회 문화가 격변하던 시기에 펼쳐졌다.²⁾ 그는 正祖 10년(1786 CE) 전라도 무안군 삼향면에서 仁同 張氏 집안에 태어났다. 이름은 의순이며, 字는 中孚였고, 초의는 법호이다. 아울러 海翁, 紫芋, 一枝庵 등의 자호와 필명이 있으며, 헌종 임금으로부터 普濟尊者라는 호도 받았다. 모친이 큰 별이 품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잉태하였다고 하며, 열다섯 살에 남평 운흥사에 출가하여 碧峰 敏性 스님에게 득도되었다.

열아홉 살 때에 영암 월출산에서 깨침의 경험을 한 뒤에, 해남 대흥사의 玩虎 倫佑(1758-1826)³⁾로부터 구족계를 받고 그의 法脈을 이었으며 초의라는 法號를 받았다. 스물두 살 때부터 제방의 선지식들을 참방하며 탁마하고 經律論三藏을 통달하였다. 金潭⁴⁾ 율사의 戒脈도 이어, 禪教律에 두루 해박하였고 각각의 전통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스물네 살 때에 정약용과 처음 교류하였다. 서른 살이 되어 서울에 가서 김정희, 신위, 홍석주 등과 교류하였다. 초의는 문인들과 시를 함께 지으며

1). 초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그의 선사상, 시, 茶論 등에 대한 각론적 분야별 연구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성과를 포괄 종합하고 그의 삶과 사상을 역사적 맥락에서 총체적 조명을 새롭게 시도한 연구에 대해서는 Young Ho Lee, "Ch'oüi Üisun 艸衣 意恂 (1786-1866): A Liberal Sön 禪 Master and an Engaged Artist in Late Chosön 朝鮮 Korea,"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98 및 Lee, Young Ho, *Ch'oüi Üisun : A Liberal Sön Master and an Engaged Artist in Late Chosön Korea* (Fremont CA: Asian Humanities Press, 2002)를 참조 할 것.

2). 초의의 생애를 알아보는 데에는 두 가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묘비명으로서 申櫛(1810-1888)이 1867년 지은 「賜號普濟尊者艸衣大宗師意恂塔銘」과 李喜豊이 1871년 지은 「艸衣大師塔銘」, 두 번째로 梵海 覺岸(1820-1896)이 지은 『東師列傳』 가운데 「草衣禪伯傳」이 있다.

3). 원호는, 조선 불교를 중흥시킨 淸虛 休靜(1520-1604)과 그를 이은 鞭羊 彦機(1587-1644), 그를 이은 楓潭 義謙(1592-1665), 그를 이은 月潭 雪齊(1632-1704), 그를 이은 喚惺 志安(1664-1729), 그를 이은 虎岩 體淨(1687-1748), 그를 이은 蓮潭 有一(1720-1799)의 법맥을 계승하였다.

4) 금담 율사는 근세에 계맥부흥을 위해 지리산 칠불암에서 기도 발원하여 瑞相受戒한 大隱 朗昨(1780-1841) 율사의 맥을 이었다.

세상 속에 활동하다가 점점 자신의 명성이 알려지자 산중에 은거하려고 서른 아홉 살에 두륜산 대흥사 동쪽에 일지암을 짓고 그후 40여년의 근거로 삼았다.

마흔세 살 때 초의는 지리산 칠불암에서 『茶神傳』⁵⁾을 초록하여 두었다가 마흔다섯 살 때 일지암에서 정서하고 유포하여 올바른 차생활의 도리와 방법을 참선 수행자들을 중심으로 일반에게 제시하였고, 선두 살 때에 『東茶頌』⁶⁾을 지어 차인들에게 국산차의 훌륭함을 깨닫게 하였다. 아울러 선의 요지를 밝힌 『艸衣禪課』⁷⁾와 『禪門四辨漫語』,⁸⁾ 『震默祖師遺蹟攷』⁹⁾ 등의 불교관련 저술과 함께 시 모음집인 『艸衣詩藁』¹⁰⁾와 각종 기록들을 모은 『一枝庵文集』¹¹⁾이 전해지고 있다.

2. 艸衣의 禪

초의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 선사로서 100여 년간에 걸쳐 전개된 禪 논쟁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었음에 주목하며,¹²⁾ 『초의선과』와 『선문사변만어』를 중심으로 그의 선에 대한 특징을 고찰해 본다. 『초의선과』 解題의 일부분에 대한 抄譯을 통하여, 그의 禪門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禪>: 中峯 (1263-1323)선사는 “[선은] 산스크리트어인 禪那 (*dhyana*)[를 줄인 말]로서, 思惟修 또는 寂滅이라고도 불리니 곧 한 마음의 극치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육조 혜능(638-713)선사는 “자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바를 안으로 관찰하는 것을 이름하여 선이라 한다”라고 하셨다. 龜谷 선사가 이르기를 “이는 교학적 가르침과는 다르게 특별히 전해온 一味禪이다. 飯宗선사가 작별 인사차 온 한 스님에게, ‘어디로 가려느냐?’라고 물으니, 그 스님이 ‘五味禪을 배우러 여러 곳을 다니려 합니다’라고 대답하므로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곳에는 오미선이 있겠지만 내게는 오직 일미선이 있을 뿐일세’ 하니...”

<門>: 『禪要經』에 따르면, 棄諸蓋 보살은 부처님께 “선수행에 필요한 비결은 한 가지 뿐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만약 여러 가지가 있다면 두 가지의 법칙이 있다고 할 것이며, 한 가지 뿐이라면 한없는 중생들을 포용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여쭙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훌륭한 집안의 아들이여! 선수행에 필요한 방법은 한 가지도 아니며, 또한 여러 가지도 아니다. 모든 생명의 성품은 허공과 같은 것이다.....모든 객관적 현상들을 포섭하여 둘이 아닌 문에 들어가 넓고도 철저히 그리고 깨닫기 [마음을] 비워 담담하게 선정에 드는 것이 선문[의 가르침]이다”라고 하셨다.¹³⁾

5) 『韓國佛教全書』(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권 10, 871-873쪽

6) 같은 책, 874-876쪽

7) 『초의선과』의 본명은 『禪門拈頌選要疏』로서 초의가 40여 년 간 머물렀던 대둔사 일지암에서 집필한 것으로 간기가 없이 필사본으로만 전해지고 있다. 龍雲 編, 『艸衣禪師全集』(서울: 亞細亞文化社, 1985), 341-417쪽

8) 『한국불교전서』, 810-830쪽

9) 같은 책, 876-884쪽

10) 같은 책, 830-870쪽

11) 『초의선사전집』, 223-325쪽

12) 논쟁의 주된 내용은 선종의 전통가풍에 대한 인식과 분류에 관한 것이었다. 1810년 초 白坡 巨璇(1767-1852)이 『禪手鏡』을 지어 臨濟(?-867)의 三句에 모든 선 전통을 건강부회식으로 배대시킨 것을 보고, 초의 의순이 그 부당함을 비판한 것으로부터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후 優曇 洪基(1822-1881)와 雪寶 有炯(1824-1889)을 거쳐 震河 竺願(1861-1926)에 이르는 100여 년 간 같은 주제에 대한 논변이 이어졌다.

여기에서 우리는 초의가 정통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선사들의 어록과 경전을 인용함으로써, 선의 어원과 개념 및 수행법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밝히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중국 임제종의 저명한 증봉선사의 설명을 인용함으로써, 선의 어원이 불교의 발원지인 인도에서 전래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가 중국 선종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혜능보다 훨씬 후대의 범손인 증봉의 설명을 먼저 들어 선의 근원을 밝히려 한 점은 주목된다. 그는 일미선에 대한 강조를 통하여, 비록 선사들의 가풍은 일정치 않다 하더라도, 그들에 의한 가르침의 내용은 한결같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선수행의 지향점도 제시하고 있다. 『선요경』을 인용하여 선수행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점도 당시의 선문에서는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그는 선사의 가르침과 함께 불타와 보살의 가르침을 통한 불교의 전통성을 강조하면서, 일체의 차별을 부정하는不二禪도 내세웠다. 이는 불보살의 교설과 선사들의 가르침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이려 한 의도인 것 같다.

『초의선과』에 수록된 40여 가지의 공안들과 그에 대한 염송들 가운데 몇 가지를 통해 초의의 선사상을 유추해 보자. 첫 번째 인용된 공안은 돼지(猪子)가 화제인데, 이는 『선문염송집』의 11번째 공안이다. 이 공안을 통해서도 목축인과 농부 등의 평범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초의가 이러한 공안을 첫 번째로 선택하여 소개한 의도는 선이란 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실현되어야 하는 것임을 보이려 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마음이 부처,’ ‘마음과 중생과 부처는 하나,’ ‘깨치면 부처요 못 깨치면 범부 중생’ 등과 같은 선문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사회적 신분과는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평등 무차별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함으로써, 누구라도 선 수행에 동참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도 엿볼 수 있다. 혜심과 각운의 말을 인용한 그의 주석도 중국선사들보다는 한국선사들의 견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우리는 초의가 선불교의 가르침을 특정 계층의 인사들에만 국한시키든지, 현학적인 논변에만 머무는지, 아니면 중국선사들의 어록에 맹목적 권위를 부여한다든지 하는 교단의 분위기에 영합하지 않으려 한 것을 알 수 있다. ‘정해진 법(定法)’에서는 선의 시간적, 공간적 초월성과 아울러 조사선과 여래선의 차이에 대하여 논하였다. 즉 약 2500여 년 전 석존이 인도의 영취산에서 대중과 함께 머무시며 설법 교화하시던 시절과 근대의 한국에서 선을 지도하는 초의의 근본적 상황은 닮이 없다는 인식이다. 그는 ‘조사선’이란 말과 글을 쓰지 않는 ‘격외선’을 뜻한다고 하며, 언설로 교시한 선은 ‘여래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의가 선택한 다른 주제들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처님이 보이신 침묵, 實相, 본성, 中道, 삼매, 大乘菩薩道, 균형과 조화 등이다. 즉, 선수행자에게 요긴한 경구들로서 특히, 경전의 주요 구절들에 대한 拈頌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초의가 옛 선사들이 경의

13). 앞의 책, 『艸衣禪師全集』, 341-342쪽

참뜻을 살려내려는 의도로 염송을 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초의가 선택한 염송 및 설화를 중심으로 그의 선에 대한 안목과 특징을 살펴보면, 초의가 『선문염송선요소』를 편찬하기 위해 선택한 40칙의 공안들은 『염송설화』¹⁴⁾ 가운데에 모두 제1권과 제2권에 있는 것들로서, 처음의 20칙은 부처님과 관련된 것들이며 나머지 20칙은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등 대승불교의 중심 경전들에서 추출한 것들이다. 그러나, 초의가 나머지 28권의 염송들 가운데에서도 공안을 발췌하여 거기에 대한 주석과 논평을 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제1권과 제2권의 공안만 발췌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지만, 현존 자료에 의하는 한, 초의는 교학적 전거를 바탕으로 선의 원류와 전통의 근본을 석존에게서 찾고 있었으며, 그의 이러한 의도는 중국 선사의 저술과 가르침만 중요시하던 당시의 선문으로 하여금 인도 및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하고, 당시의 경도된 선 풍토를 바로 잡으려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선문사변만어』에서 초의는 백파가 주장한 조사선, 여래선, 의리선의 三種禪 개념과 이 개념들에 대한 범주 설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또한 임제 삼구를 독단적, 임의적으로 배치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부처와 관련된 선을 여래선, 조사와 관련된 선을 조사선으로 구분한 인물에 따른 선의 분류법을 택하지 않고, 연구의 사용여부에 의해 선을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초의는 선의 분류 기준을 연구를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의 차이에 두고, 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조사선으로, 연구를 사용하는 경우를 여래선으로 본다. 그는 연구를 사용하는 의리선도 여래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부처의 말씀이라도 ‘꽃을 들어 보임’과 ‘침묵함’과 같이 연구를 쓰지 않은 경우는 조사선으로 볼 수 있고, 조사로 불리는 선사들이 제자들과의 선문답에서 사용한 연구가 논리를 초월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때 사용된 연구는 여래선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초의는 백파가 여래선과 조사선을 모두 격외선으로 분류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결과적으로, 언어를 사용하여 깨우치는 선을 정격 여래선으로 본다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깨우치는 선을 격외 조사선이라고 지칭한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초의는 모든 선을 여래와 조사, 정격과 격외의 차이에 따라 二種禪으로 분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함을 주장했다.

초의는 선에 근기의 차이를 두거나 선 자체에 우열 및 등급을 두는 것을 부정했으며, 禪宗五家에 대한 우열을 가려놓은 백파의 인식을 비판하였다. 오종은 한 뿌리에서 생겨난 여러 줄기로서, 모두 평등하게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초의의 인

14) 1463칙을 망라한 『염송설화』는 모두 3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석존과 관련된 30칙을 다루고 있으며, 제2권은 보살과 아라한을 비롯한 인도의 불교 성인들과 관련된 공안을 포함하여 41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권은 마하가섭, 아난, 馬鳴, 龍樹 등의 인도 조사들과 보리달마, 慧可, 弘忍을 비롯한 중국의 조사들에 관한 36칙의 공안을, 제4권 이하는 혜능과 그 이후의 중국 선사들에 관한 공안과 염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韓國佛敎全書』 제5책 目次 참조.

식이다. 그의 변증방식은 당시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지식계층에 새롭게 대두되었던 실사구시의 실학적 기풍과 고증학적 방법이였다. 보수적 입장에 서서 자의적 해석을 시도한 백파와는 달리, 초의는 사실에 입각하여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비판적, 진보적 사상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었다.

앞에서 검토한 초의의 두 가지 선에 관한 저술을 기초로 초의의 선에 관한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의는 선 전통을 인물과 방법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류하여, 각각 조사선과 여래선 및 격외선과 정격선으로서 합리적으로 구분한다. 둘째, 선종 전통의 기원과 정통성의 근거를 석존에게 두었으며, 인도 조사들의 선사상도 중요시하였다. 셋째, 선의 시간적, 공간적 초월성과 민족적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선 이해에 있어서 근기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선종 종파의 우열을 정하는 것도 부정하고 본질에 있어 평등함을 주장했다. 다섯째, 선문에서 흔히 쓰는 기본용어의 참뜻을 해설하며 그 용어들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모범을 보였다. 여섯째, 초의는 선 수행자의 상황윤리를 강조했다. 일곱째, 개방적 자세를 가지고 실학적, 고증학적 방법에 의해 자신의 담론을 전개했으며, 당시 선문의 독단성을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있었다.

초의는 사회 문화적 상황을 감안한 주체적 관점에서 타성에 젖은 보수적 선문에 개방적 담론을 제시하였다. 즉, 그는 선이 전문 수행자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실현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선의 보편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초의에게는 선과 삶이 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일체가 선 아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교의별전만 내세우거나 문자에 의한 현학적 지식에만 매몰되는 극단을 지양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어린 교학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운 후, 선적 장점을 들어내어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고 활발하게 절대진리의 세계에 함께 호흡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당시의 정치 사회와 종교 문화 등 전반적 여건을 감안해볼 때, 사대부들로 구성된 기성 보수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였고, 불교계 내부도 선전통 해석에 독선적 주장이 만연하여 혼란한 상황에서, 초의는 선적 정의를 밝히려 애썼고, 자신의 삶을 통해 달관한 이들이 무위와 자연을 즐기고 천진난만을 누릴 수 있음도 보여주었다. 온갖 분별을 넘어서는 그의 불이와 중도의 삶은 편협과 고착을 벗어난 대범한 기상을 느끼게 한다. 초의가 보여 준 열린 자세와 진솔한 삶의 향기는 오늘을 사는 종교인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도 각박한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초의의 茶

차는 차나무의 잎을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서 따뜻한 물에 우려먹는 음료이다. 그 나무와 잎 등 크기와 모양의 차이로 보아 인도에서 비롯된 것과 중국에서 연원된 것으로 대별하기도 한다. 스리랑카 등 열대지방의 차와 한국 등지의 온대 산, 한국 안에서도 전라도와 경상도, 전라도 안에서도 지리산 등 산록과 강진 등 해변가의 것이 한결같지 않음을 감안하면, 기후와 토양 등 자연환경 조건에 따라 그 맛의 차

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차문화도 인도와 중국 내지 동양과 서양 각 나라와 지역마다 차의 제조와 음용 등 역사와 풍습의 차이와 특징이 있듯이, 한국에도 한국인에 의하여 한국 상황에 알맞는 독특한 차문화 전통이 있어왔으리라고 유추할 수 있다. 우리나라 차에 대하여 돌아켜보면, 역사적 문헌에 나타나는 바로서, 가야(혹은 가락)를 포함한 신라 등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불교문화 흥성과 더불어 차문화가 함께 발전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¹⁵⁾ 이를테면, 신라 경덕왕대의 충담사와 고려 진각국사 혜심(1178-1234) 등 대표적 승려 다인들은 물론, 최치원과 이규보 등 문인 거사 다인들의 차와 관련된 사연과 시문들을 보면, 당시 불교 수행자와 학자들의 차생활이 얼마나 왕성하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¹⁶⁾ 반면에 차보다 술을 중시한 유교문화가 풍미했던 조선시대에 정치적으로 억압된 불교문화 위축에 따른 차문화의 쇠퇴도 확인된다. 여기서는 주제에 국한하여 초의 선사의 차 인식과 체험을 그의 저술을 통해 고찰하며 참선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한다. 먼저 한국의 茶經으로 평가되고 통용되는 바, 초의 선사가 홍현주(1793-1865)의 청에 의해 우리나라 차를 칭송하여 지은 『동다송』을 통해 그의 차에 대한 인식을 감상 음미하고, 이어서 『萬寶全書』에서 채록하여 편저한 『다신전』을 통해 그가 안내하는 건전한 차생활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동다송』의 “후황이 이 예쁜 나무 곁의 덕과 짝지시니, 받은 명분 변치 않아 남녘에만 살아가네. 성한 잎들 우박 쳐도 겨울 내내 푸르르고, 하얀 꽃은 서리 씻겨 늦가을에 꽃피우네.”¹⁷⁾라는 첫 번째 구절은 차나무의 품격과 절조를 짐작하게 하고, 이어서 “고사산중 신선들의 살결마냥 깨끗하고, 염부단금 누런 꽃술 아름답게 열매 맺네. 맑은 이슬 씻긴 가지 벽옥같이 푸르르고, 아침안개 머금은 잎 푸른 새 혀 닮았어라.”¹⁸⁾ 하는 묘사를 통해 차나무의 가지와 그 잎새 및 열매의 아름답고 청결한 자태를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차나무를 인격에 빗대어 평가하고 찬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의는 주를 통해, 유명한 당나라 시인 이백(701-762)이 “형주 옥천사의 맑은 시냇가의 모든 산에 차나무가 두루 생장하고 있는데, 가지와 잎이 푸른 옥과 같다. 옥천사 진공 스님이 항상 그 것을 따다가 차로 마셨다.”¹⁹⁾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차나무가 서식하는 정갈한 장소와 차나무의 아름다움을 제시함은 물론, 스님들의 음다 문화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부터 차는 단순하고 평범한 음료 이상으로 수도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는 초의의 인식과 평가를 알 수 있다.

15) 『삼국사기』 등 신라 선덕여왕(632-647 재위)대에 차를 마셨다는 기록과, 가락국의 김수로 왕의 왕비 허황옥이 조국인 인도 아유타국에서 떠나올 때 차 씨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차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통광, 앞의 책, 24-25쪽

16) 김운학, 앞의 책, 49-79쪽

17) 后皇嘉樹配橘德 受命不遷生南國 蜜葉鬪霞貫冬青 素花濯霜發秋榮

18) 姑射仙子粉肌潔 閭浮檀金芳心結 沆瀣漱清碧玉條 朝霞含潤翠禽舌

19) 李白云 荊州玉泉寺青溪諸山 有茗草羅生 枝葉如碧玉 玉泉寺眞公常採飲

“하늘, 신선, 사람, 귀신, 모두 아껴 사랑하니, 그대 물건 됄됨이가 뛰어남을 알겠노라. 염제조차 일찌감치 식경 위에 기재했고, 옛날부터 ‘제호 감로’ 그 이름을 전해오네.”²⁰⁾라는 구절은, 고대 중국의 전설적 임금인 신농씨 때부터 품격의 뛰어남이 기록되었다는 인용을 통해, 차의 전통이 아주 오래되었음과 아울러, 그 유통 및 효용범위가 다양하여 인간은 물론 하늘의 신들 및 땅의 귀신에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불교가 전래되기 전부터 중국인들에게 차가 음용되었음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불교가 중국을 풍미하고 그에 관련된 용어가 확산되어 ‘제호’와 ‘감로’라는 불교 문화적 어휘가 차 맛의 극치를 비유하는데 사용되어 왔음을 통해, 불교와의 깊은 인연을 들어내 보이며 함을 알 수 있다. “술 깨우고 잠 줄인다’ 주공 성인 증언했고, 조밥 먹고 차 마시며 제 안영은 만족했네. 여요 우홍 제물 올려 단구자의 차를 얻고, 털긴 신선 차밭으로 의성 진정 이끌었네.”²¹⁾라는 구절은 차가 술에 취해 흐려진 정신을 맑게 하고, 졸음을 쫓으며 잠을 적게 하는 공능이 있음을 孔子도 聖人으로 숭앙했던 周公의 증언으로 강조했고, 그렇게 귀한 차를 얻기 위해서는 정성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이로서 세간 사람들에게는 깨우침을 주고 출세간 수도자들에게는 참선에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어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이들이 오래 전부터 애용해 왔음과 차만 있으면 간소한 식단으로도 만족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²²⁾ 일상으로 차를 마시며 스스로 조출하게 살아간 초의의 차생활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지하 혼령 차 공양에 만금 보답 안 아꼈고, 모든 맛의 으뜸으로 귀한 이들 칭찬했네. 수 문황제 뇌골 통증 고쳤다고 전해오고, 뇌소차와 용향차도 차례차례 생겨났네.”²³⁾라는 구절은, 차가 모든 음식 맛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²⁴⁾ 뇌골증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약효도 있다는 점을 유명한 사례와 식귀를 인용하여 소개하며, 아울러 차는 인간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감동할 정도로 귀한 음료로서, 뇌소와 용향 등 여러 가지 차가 생겨난 연유를 소개하고 있다. “음식 숭상 중국 황제 온갖 진미 갖추고도 공주에게 하사한 건 자영차만 기록됐네. 차 만드는 요령 전통 그때부터 성행하여 청현 명사 음미하고 그 맛 좋다 자랑했네.”²⁵⁾라는 구절은, 많은 음식물 가운데에 특별한 선물로서 차가 선택되어 왔었다는 사실과, 그 차를 만드는 방법의 유래와 유통의 배경을 알려주고, 훌륭한 사람들이 음용해온 전통을 보여준다. 초의 자신이 製茶부터 飲茶까지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에 걸쳐 차의 다양한 공능과 우수성 및 인간관계 등 차문화생활의 성숙한 소양과 다채로운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20) 天仙人鬼俱愛重 知爾爲物誠寄絕 炎帝曾嘗載食經 醜醜甘露舊傳名

21) 解醒少眠證聖聖 脫粟伴菜聞齊嬰 虞洪薦饌乞丹邱 毛仙示叢引秦精

22) 晏子春秋 嬰相齊景公時 食脫粟飯炙三戈五卵茗菜而已

23) 潛壤不惜謝萬錢 鼎食獨稱冠六情 開皇醫腦傳異事 雷笑茸香取次生

24) 張孟陽 登樓詩：鼎食隨時進 百和妙具殊 芳茶冠六情 溢味播九區

25) 巨唐尙食羞百珍 沁園唯獨記紫英 法製頭綱從此盛 清賢名士誇雋永

“채색으로 꾸민 용봉 정교하고 아름답다. 몇 만금을 허비하여 온갖 떡차 만들었네. 누가 알랴, 갖추어진 풍요로운 참 빛 향기. 한번 실수 물들으면 참 성품을 잃고마네.”²⁶⁾ 라는 구절은, 떡차 등 여러 종류의 차를 만들고 장식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음과, 차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맛과 아울러 빛과 향기는 오염되기 쉬우므로 참 성품의 보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일깨운다. “부(傅) 도인이 온전하게 아름다운 차 얻고자, 일찍부터 몽산 마루 손수 차를 심으시어, 차 다섯 근 만들어서 군왕에게 베푼 것은, 그 이름도 상서로운 길상예와 성양화라.”²⁷⁾ 라는 구절은, 유명한 도인 부대사(傅大士)가 몽산 꼭대기에 암자를 짓고 살면서, 차를 심어 가꾸기 3년여에, 가장 좋은 차를 만들어서 성양화 길상예라고 이름 붙여, 다섯 근을 임금에게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통해, 도인들 특히 불교 수도자들이 차를 잘 가꾸고 만들었으며 중요한 인사들에게 선물했던 풍습을 알려준다. 초의 자신이 차를 잘 만들어 여러 분야의 벗들에게 나누어주며 차를 보급하고 차의 참 맛을 일깨운 배경과 의지를 이해하게 한다.

“그 가운데 그윽함은 설명하기 어려우니. 조심하여 물과 차가 나누이지 않게 하라. 물과 차가 온전해도 중정을 꼭 지킬지니, 중과 정엔 다신건전 수성신령 함께하네.”²⁸⁾ 라는 구절은 차를 끓여 마실 때 유념할 점을 가르친다. 그 방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미묘한데, 좋은 물을 적절히 끓여 온도를 맞춘 후, 적당한 양의 차를 넣어 알맞게 우려 마셔야 한다. 물이 體가 되고 차가 神이 되는 바, 체와 신이 잘 어울려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알맞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대숲 소리 솔 물결이 모두 함께 서늘하다. 시원함이 사무치게 몸과 마음 깨워주네. 흰 구름과 밝은 달로 두 손님을 삼을지니, 참 도인의 자리에는 이것이면 훌륭하네.”²⁹⁾ 라는 구절은, 차를 마실 때의 바람직한 정황을 보여준다. 대나무와 소나무에 둘러싸인 조용한 찻집에서 구름과 달을 벗삼는다는 조출하고 정갈한 분위기를 묘사해 주고 있다. 홀로 차를 마시는 수도자의 고요한 마음과 해맑은 자태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 번거로움과 시끄러움이 없는 깨어있는 상태를 이상적인 차인의 경지로 소개하고 있다. 초의 자신의 원숙한 경험과 안목으로 차생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自祝 頌歌라고 할 수 있다.

『다신전』은 차를 만들어서 먹는 차생활에 필요한 모든 과정과 방법을 시작부터 끝까지 간명하게 그 요점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차나무에서 잎을 따는데 있어 그 시기와 찻잎의 모양 등을 다룬 採茶; 그 따온 찻잎을 솥에 볶아 덖어서 차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 造茶; 만든 차의 품질을 빛깔 등으로 식별하는 辨茶, 만들어진 차를 상하지 않게 잘 보관 저장하는 藏茶; 차물을 끓일 때 불을 알맞게 가늠하도록 하는 火候; 끓는 물을 모양과 소리 및 기운으로

26) 綵莊龍鳳團巧麗 費盡萬金成百餅 誰知自饒眞色香 一經點染失真性

27) 道人雅欲全其嘉 曾向蒙頂手栽那 養得五斤獻君王 吉祥蕊與聖楊花

28) 中有玄微妙難顯 眞精莫教體神分 體神雖全猶恐過中正 中正不過健靈併

29) 竹籟松濤俱蕭涼 清寒瑩骨心肝惺 惟許白雲明月爲二客 道人座上此爲勝

식별하는 湯辨; 차를 내는데 쓰는 찻잎을 분별하는 湯用老嫩; 차 물 끓이는 방법인 泡法; 차관에 찻잎을 알맞게 넣는 법인 投茶; 차를 마시는 분위기 등 아취를 다룬 飲茶; 진향과 순향 등 차의 향기를 논한 香; 취색과 남백색 등 차의 빛깔을 다룬 色³⁰); 단 맛과 쓴 맛 등 차 맛을 가름한 味; 이물질에 오염되면 참맛을 잃는다고 주의한 點染失真; 변질된 차는 마시지 말라는 茶變不可用; 물의 성품과 등급을 논한 品泉; 우물물은 차 끓이는데 적당치 않다는 井水不宜茶; 물을 잘 저장하는데 주의할 것을 다룬 貯水; 차를 내는 도구의 성질과 마땅함을 논한 茶具; 찻잔의 빛깔을 평한 茶盞; 찻잔을 닦는데 쓰는 행주를 다룬 拭盞布; 정갈하게 만들고 건조하게 보관하며 깨끗하게 끓여야 된다고 차의 위생법을 다룬 茶衛 등 총 22개의 절목이다. 초의는 각각의 조목마다 주의할 점을 자세한 설명을 하였고, 발문을 통해 많은 참선수행자들이 趙州茶를 알고자 하여도 알 수 없다고 하여 그들을 위해 이를 마련하여 제공하려한다고 그 동기를 밝히고 있다. 조주차란 조주 선사가 그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차를 즐겼음은 물론, 그를 찾아오는 참선 남자들에게 차를 권하였으며, 특히, 어느 수좌와의 선문답에서 불법의 정수를 물었을 때에, “차 마시고 가라 (喫茶去)”는 대답으로 유명하며 이는 화두 공안의 하나로 전해져 오는데, 이로부터 차를 마심이 단순히 물질적 차를 마심을 넘어 마음을 깨우치기 위한 참선수행과 관련되어 전승되어 옴을 알 수 있다.

앞에서 검토한 바 차에 대한 초의의 두 저술 내용을 통해, 차는 선수행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올바른 차생활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지식과 성숙한 소양이 필요하다는 초의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차가 예로부터 음식문화 가운데 높이 평가되고 중요시 되어왔으며, 병의 치유 능력 등을 포함하여 신체 건강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정신을 맑고 뚜렷하게 해주어 수행자에게 애용되어왔음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참선 수행자들을 중심으로 僧俗을 망라한 여러 사회 대중에게 유익하고 격조높은 문화생활을 하도록 이끌기 위하여 초의가 자신의 차에 대한 지식과 차생활 경험을 나누며 차와 선의 진수를 깨닫게 하려고 노력한 깊은 뜻을 짐작할 수 있다.

4. 초의의 다선 不二思想

일반적으로 통하는 ‘茶禪’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ニュ앙스를 갖고 있다. 차와 선의 관련을 말함에 있어 ‘차’와 ‘선’을 동등하게 보고, ‘차와 선’의 줄임말로 생각할 수도 있고, ‘선’을 주로 보고 ‘차’를 ‘副’ 혹은 ‘補助’로 하여, ‘선’을 한정 수식하는 어법으로서, 많은 선의 영역 가운데 차와 관련된 부분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후자의 반대로는 ‘禪茶’라는 용어의 경우로서 차의 많은 영역 가운데 선과 관련된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다. 여기서는 두 가지 경우 모두를 상정할 수 있겠으며, 초의가 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살펴보자. 앞에서 인용한 초의의 저술인 『초의선과』와 『선문사변만어』, 『다신전』과 『동다송』 등에서 초의 자신이 선

30) 차는 맑고 푸른 것이 가장 좋고, 무노리는 쪽빛과 흰빛이 어우러진 것이 바람직하다. 누렇거나 검거나 붉거나 어두운 것은 모두 좋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다.

이나 차에 대한 주제별 집중 논술 가운데에 “다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명한 대목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초의가 그의 생각과 심경 및 삶 등을 읊은 시를 통해 그와 관련한 그의 삶과 정신세계를 가름해 볼 수 있다. 초의가 홀로 혹은 지인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은 많은 수의 시들 가운데에는 차와 선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가 적지 않아, 여기서는 ‘차’와 ‘선’의 연구를 함께 보인 그의 시를 다소 인용하여 그의 ‘선과 차’의 인식과 사상을 끌어내 보고자 한다.

먼저 초의 나이 서른 두 살 때에 동장에서 김정희 일행과 헤어지면서 초의가 지은 시 가운데 관련부분을 보자.

가는 연기 열은 안개 나무 끝에 번져나고 (細烟生樹梢)
 약한 바람 풍경 소리 구름 속에 메아리 쳐 (微聲響雲中)
 알 수 없네 구름 속과 나무들의 뒤안길에 (不知雲樹裏)
 참선하는 누각들이 그 얼마나 서 있는지. (禪樓信幾重)³¹⁾
 흩어지는 먹물 번짐 그윽하고 해 맑으며 (掩冉墨暈清)
 파르라니 차 연기가 은은하게 돌아든다. (縹緗茶烟碧)
 바라보니 절로절로 화한 기운 가득하고 (瞻眺自靄然)
 아름다운 그림들이 고운 벽에 둘러 있네. (鉛華籠淨壁)³²⁾

앞 구절에서는 수행자들이 참선하는 누각으로 ‘禪樓’라는 낱말이 보이고, 뒤 구절에는 차를 끓이는데서 나오는 연기 즉 ‘茶烟’이란 말을 볼 수 있다. 초의는 안개와 나무 숲 저쪽에서 들리는 작은 풍경소리를 듣고도 참선인의 정진도량을 연상하며, 먹물 갈아 시를 짓고 글씨와 그림을 그리는 분위기에서도 차를 다려 마시는 운치를 노래하고 있다. 초의의 정신문화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서 우리는 그가 선사로서 참선 가운데 시와 서화를 즐기며 차 마심을 일상생활화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초의 나이 서른여덟 살 때에, 도촌 김인항이 초의를 참방하고 간 후 지은 시 가운데 한 대목을 보자.

내가 홀로 고요하게 바위굴에 지낸다고 (聞我巖居靜)
 소식 듣고 구름 헤쳐 송헌까지 이르렀네 (披雲到松軒)
 그를 위해 샘물 길어 뇌소차를 끓였었고 (掬泉烹雷笑)
 향 피우고 더불어서 도와 덕을 얘기했지. (焚香演道言)³³⁾

여기서 자연 속에 은거하며 수도하던 김인항이 초의가 소나무 우거진 바위 산중에서 토굴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기로, 그를 위해 근처의 샘물을 길어와 ‘뇌소’차를 달여 대접하며, 그와 함께 도와 덕을 논했음을 회상하는 시구를 통해 초의가 자술한 수도생활 가운데 일부를 그려볼 수 있다. 혼자 청빈하게 수도하고 있는 초의의 고명을 듣고, 도촌 자신 역시 수행자로서 가르침을 얻고자 찾아

31) 『초의선사전집』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5), 39쪽

32) 앞의 책 40쪽

33) 앞의 책 53쪽

왔으므로, 귀한 뇌소차로 손님을 접대하며, 향을 사루어 분위기를 경건하고 정갈하게 만들며 도를 논하고 덕담을 나누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게 보인다. 초의에게 수도생활은 참선생활에 다름 아니며, 그 깊고 외진 곳에서 어렵게 지내면서도 차를 달여 마심은 참선수도의 필수요소였다고 볼 수 있다.

초의 나이 마흔 다섯에 수종사에서 석옥 화상의 시에서 만 韻에 맞추어 지은 시 일부를 보자.

꿈 깨우는 양산 차를 어느 누가 배풀건가 (夢回誰進仰山茶)
 한가로이 경을 보며 어리석음 눈병 씻네. (懶把殘經洗眼花)
 저 산 아래 마음 맞는 임의로운 친구 있어 (賴有知音山下在)
 인연 따라 찾아와서 운수 도량 머무르네. (隨緣來住白雲家)³⁴⁾

석옥 화상은 중국 임제종의 18세 조사이며 고려의 태고 보우 스님이 그를 참방하였을 때 법을 전해준 고승으로서, 그의 존재는 한국선문에서 절대적 위치에 있으며, 태고와의 인연담은 모든 수행자들에게 회자된다. 초의가 그의 시에서 운을 취하여 시를 지었음을 통해 초의가 얼마나 석옥 화상을 마음에 기리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양산차’는 양산 혜적(840-916) 선사가 항상 차를 즐겼으며, 누가 불법의 참뜻을 물으면 차를 권했다는 데서 나온 바, 선과 차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양산차’는 조주 스님과 차와의 인연에서 비롯된 ‘조주차’와 유사한 이야기로서, 차가 선 수행에 중요한 도구임을 알려준다. 참선 수행자가 선지식을 찾아다님을 구름과 흐르는 물로 비교하여 그 들을 ‘운수’로 지칭한다. 선찰에서는 절 살림을 살고 움직이지 않는 소임자를 움직이지 않는 산에 비유하고 그들을 청산으로 분류하며, 안거 때만 찾아오는 참선 수행자를 ‘백운’으로 분류한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 ‘백운가’는 선 수행자들이 머물고 수행하는 선원을 가리키며, 초의는 선원에서 참선수행과 지도를 하며, 양산 스님과 같이 차를 즐기고 또 다른 출가 참선수행자들 및 재가 불자들과도 차를 함께 마시며 깨우침을 나누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그에게는 선과 차가 그의 생활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초의는 제목을 차와 관련시켜 지은 시도 있다. “石泉煎茶”라는 시를 보자.

하늘빛은 물과 같고 물의 빛은 안개 같네. (天光如水水如烟)
 여기 와서 노닐은지 벌써 반년 지났구나. (此地來遊已半年)
 좋은 밤을 몇 번이나 밝은 달과 함께 했나 (良夜幾同明月臥)
 맑은 강물 기슭에서 갈매기와 잠이 드네. (清江今對白鷗眠)
 싫어하고 시샘하는 마음 원래 없었으니 (嫌猜元不留心內)
 험 뜰거나 칭찬하는 소리 어찌 들리겠나. (毀譽何曾到耳邊)
 소매 속엔 뇌소차가 아직 얼마 남았으니 (袖裏尚餘驚雷笑)
 다시 구름 기대어서 두릉 샘물 맛을 보리. (倚雲更試杜陵泉)³⁵⁾

이 시는 초의가 한강가 두릉천 근처에서 강물과 갈매기를 바라보며, 서울의 번잡

34) 앞의 책 70쪽

35) 앞의 책 93쪽

하고 혼탁한 세대 속에서도 초연하게 산중에서와 같이 참선수행을 하면서 차를 끓여 마시는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초의는 ‘뇌소’차와 같은 좋은 차를 늘 소매 속에 지니고 다니며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끓여 마셨고, 특히 좋은 물이 있는 곳에서는 그 물로 차를 만들어 마셨음을 짐작할 수 있다.

초의 나이 마흔 아홉에 기산이 차를 보내준데 대해 감사하는 글을 보내왔기로 그에 대하여 회답하며 아울러 추사에게 지어 보낸 시의 끝 부분을 음미해 보자.

바닥 없는 발우에는 향기로운 음식 가득, (無底鉢擎衆香飯)
 소리 없는 전심설법 귀도 없이 알아듣네. (沒根耳聽無言說)
 심한 번뇌 티끌 먼지 더럽힐 수 없는 곳에, (熱惱塵垢無着處)
 누가 있어 물가에서 씻어내길 바라리오. (有誰更願濯清冽)
 모든 것이 둘이 아닌 문 가운데 삼십 여인 (不二門中三十人)
 이들에겐 장광설도 아무 소용 없으리라. (都無所用廣長舌)
 그대들은 못 보는가? (君不見)
 마침내는 모두모두 이자 비유 들으리라. (末後都將伊字喻)
 가로 세로 함께 서고 그러면서 나뉘는 법. (縱橫竝分也離別)
 내 이제는 그대에게 다음 말을 청하노라. (我從長者請下一轉語)
 불법 알고 닦는 기쁨 참선하는 즐거움을 (法喜供禪悅食)
 한정 없이 누리려는 큰 욕심은 허용하길. (還將容饜養)³⁶⁾

여기서는 상징적 혹은 파격적 역설인, ‘無底鉢에 담긴 香飯’과 ‘沒根耳 無言說을 듣는’ 고차원 정신세계의 非常識과 超論理의 선 세계를 엿볼 수 있다. ‘향기로운 음식’에는 밥과 국 및 반찬은 물론 으레이 향기로운 차가 포함되며, ‘茶飯’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통적인 식사에는 밥 먹기 전후나 중간에도 항상 차를 갖추어진다. 無言說의 초월적 차원에는 어떤 번뇌와 망상도 깰 수 없으며, 본래 더러운 때가 없는 곳이니 씻어 낼 무엇이 있겠는가. 산스크리트 글자 가운데 ‘이’자는 점 셋이 역삼각을 이루고 있는 형상인데, 이 모습은 안정과 균형을 상징하는 바, 인간의 인격과 삶도 것처럼 조화롭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초의의 저의를 짐작할 수 있다. 불법의 진리를 깨닫는 데서 느끼는 기쁨(法喜)과 불법을 깨닫기 위하여 참선하는 즐거움(禪悅)을 누리기 바라며, 그러한 바램을 굳이 욕심이라 한다면 차라리 그러한 욕심은 클수록 바람직하다고 도반들을 격려하는 초의의 적극적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이로써 초의 자신이 ‘茶飯’과 ‘法喜禪悅’을 누리고 있음과 아울러,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초의의 대승 보살적 자비심을 보여주고 있다.

초의 나의 선 네 살에 김금릉과 이창애가 시를 보내와 계송을 구하므로 회답으로 보낸 시 가운데 두 수를 새겨보자.

선비들이 글 쓰는 곳 선방으로 개설하니 (翰墨場開選佛場)
 보당에서 노는 기쁨 춘당보다 뛰어나리. (寶塘遊喜勝春塘)
 많은 일과 온갖 소리 모두 쉬어 끝마치니 (云云萬事都休了)
 길이 얻은 마음속에 눈과 달이 시원하다. (長得襟懷雪月涼)
 참선하며 해 길이가 길어짐을 깨달으며. (習禪漸覺日初長)
 하늘 뿌리 해 움직임 도의 운동 알려주네. (報道天根動一陽)

36) 앞의 책 146-147쪽

눈보라가 사무치는 텅 빈 산중 토굴에서 (安得空山風雪裏)
문을 닫고 마주 앉아 차 마실 때 기다리네. (閉門共對一爐香)³⁷⁾

여기서 초의가 書堂을 가리키는 翰墨場을 禪房의 異名인 ‘選佛場’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승유억불 정책을 폈던 조선 시대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궁하기 어려우므로, 선비 개개인의 집에서나 혹은 서당 안에서 선비들이 초의가 가르쳐준 참선법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이들에게는 세속적 기쁨보다 출세간의 정신적 기쁨을 더 누릴 수 있었으리라. 세간의 온갖 시비와 갈등이 사라지고 나면 고요한 내면세계에 시원한 평안이 깃들 줄 안다. 뒷 구절에서는, 인적이 드문 깊은 산중의 호젓한 토굴에서 참선하며 (習禪)하며 자연과 벗삼아 지내는 초의가, 눈과 바람이 차가운 겨울에 뜻이 통하는 도반과 차끓이는 화로(一爐香)를 앞에 두고 마주앉아 차를 마시고자 한다는 심경을 읊은 것이다. 불교인은 물론이고 유교인들까지 감싸 안고 차를 함께 마시며 우정을 나누려는 열린 마음과 온정을 느끼게 한다.

詩는 그 시를 지은 인물의 사상과 삶의 체험이 함축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앞에서 본바와 같은 초의의 시에 나타난 그의 ‘茶와 禪’의 사상과 삶을 감상하고 짐작해 볼 수 있었다. 한마디로 초의에 있어 차와 선은 그의 삶 속에서 항상 밀접하게 공존하여 분리할 수 없는 不二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5. 맺음말

우리는 처음에 초의의 저술인 『艸衣禪課』와 『禪門四辨漫語』을 중심으로 그의 선사상을 점검해 보았고, 이어서 『東茶頌』과 『茶神傳』을 통해 그의 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 초의가 지은 몇편의 시를 통해 초의가 참선을 하며 차를 마시는 생활의 단면을 돌아보았다. 이제 그의 선과 차의 관계를 되새겨 보면, 초의가 출가 수행자였으며 선사로 불렸음을 감안할 때 그의 모든 삶은 선적인 것이며, 다성으로 불리는 다인으로서 차도 그의 생활에서 지속된 필수적인 부분이었다고 짐작된다. 이를 體用의 관계로 보면 선이 체가되고 차가 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참선 생활에 차가 필요하기도 했지만 차를 만들어 마심도 참선 가운데의 일이며, 아울러 이웃에게 참선수행을 권하거나 초의 자신의 참선 경험과 지혜를 이웃에게 나누며 세상을 일깨우는 자비로운 매개로서도 차가 활용되었음도 주목된다. 그러나 초의의 불이사상과 삶으로 보면 체와 용이 둘이 아니며, 선과 차가 둘이 아니라고 하겠다. 이른바, 茶禪一味 혹은 茶禪不二라는 말처럼, 초의에게는 차와 선, 두 가지가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로 무르녹아 원숙한 경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초의의 다선 불이적 사상과 삶의 수범을 거울삼아, 참선인들은 차를 활용하여 수행을 원활하게 하며, 차인들은 참선을 통해 차생활을 승화 성숙시켜 나가면, 궁극적으로 모두가 다선불이의 경지에서 대자유와 대자재를 누릴 수 있으리라고 본다.

37) 앞의 책 154쪽

主題語：艸衣 意恂，禪，茶，詩，茶禪不二，「艸衣禪課」，「禪門四辨漫語」，
「東茶頌」，「茶神傳」

Summary:

Choeui 's Thoughts of Tea and Seon

Ven. Jinwol (Dept. of Buddhist Studies, SGSB)

This study is to examine thoughts of Choeui Euisun (1786-1866) regarding relationship between Seon (Chan, Zen) and Tea. Choeui is known not only as a representative Seon (Chan, Zen) Master in the late Joseon, Korea, but also as the Tea Sage and as a master of Three Perfections: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Extant his works are: *Seonmun sabyeon-maneo* (Comment on the Four Arguments of Seon Schools), *Choeui Seon-gwa* (Choeui's Seon Lesson), *Choeui sigo* (A Draft of Choeui's Poetry), *Dasin-jeon* (Tea Spirit Message), *Dongdasong* (Hymns to Eastern Tea), and *Jinmuk Josa yujeoggo* (Study on the Remains of the Patriarch Jinmuk)

Choeui thought that all Seon has One Flavor, no matter how many schools there are around the world. However, he explained Seon as of two kinds: Seon of Tathagata or Patriarch based on personality; and Seon which is Illogical and Informal, or derived from Meaning and Reason, based on methodology. He accepted all principles and phenomena and viewed them through a non-dual wisdom eye, by which harmony, integrity, and equanimity are attained. In his approach, Choeui liked to be open and liberal in practicing Seon meditation and had no fixed approach that could be limited or attached. He emphasized that Seon should be practiced at everywhere and anytime in daily life of everyone.

Through his work of *Dasinjeon*, Choeui tried to set guidelines about tea to help people who were interested in tea but had no texts covering substantial material about the process of tea, from production to drinking. *Dongdasong* is to praise the benefits of tea, particularly Korean tea, for human beings, based on his own experience from the appreciation of the native tea which he made and brewed. Choeui showed that tea and Seon practitioners were closely interlinked from the ancient to the present.

Choeui's poems show that he had always drunk tea and practiced Seon in his daily life. Choeui advocated his idea and experience that "Tea and Seon are One Flavor." He not only enjoyed himself with "Food of Dharma Joy and Seon Delight" in "Tea Seon Samadhi," but also offered tea to other people. It can be said that Choeui's use of tea was a very humanistic approach for sharing his wisdom, experiences, and compassion.

In conclusion, from an overall consideration of his life and works on Seon and tea, I would say that Choeui's achievements were manifested in the outward functions of his life, which in turn were derived from his spiritual essence of Seon. His spiritual Nonduality and humanity were present under all circumstances and in every kind of affair, transcending all differences.

Key Words: Choeui Euisun, Seon (Ch'an, Zen), Tea, Nonduality,
Choeui Seon-gwa, Seonmunsabyeonmaneo, Dongdasong, Dasinjeon